

정의의 종

SNU LAW MAGAZINE
VOL. 35



안용석 ·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 법대 80학번

입 학 은 또 다 른 시 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을 정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 맞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을 맞이하는 기회에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서울법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학교육기관이자 법학연구기관입니다. 서울법대는 수십 년 간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리더들을 길러내 왔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랑스러운
전통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건강한 자부심은 자신이
서울법대인이라는 걸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에 걸 맞는 용기와 품위, 책임감을 갖춘
사람임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 또한 서울법대인으로서 그 이름에 걸맞게
같이 다듬어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긴 호흡으로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하기 바랍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률실무가를 양성하는 곳이고, 법학전문대학원 과정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실무로 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판례와 법을 잘 알고 적용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법과 판례를 만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그런 역할을 하려면 깊고 넓게 공부하여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두어야 합니다.
기초야말로 지금 이곳이 아니면 다지기 어렵습니다.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3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공부만 하기에
3년은 결코 짧지 않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건널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 사이의 접촉이 줄어들고, 신체 활동도 줄어들었습니다.
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도 없지 않았습니니다. 새롭고 즐거운
교우관계를 만들고 운동도 게을리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겠습니다.

끝으로, 동기와 선·후배를 소중하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동기와 선·후배는
지금도 종종 치기마저 느껴지는 학생일지 모르지만, 십몇 년만 지나면 각자 자기 자리에서
빛나는 별이 되어 있을 사람들입니다. 미래의 별들을 한 곳에서 만나 함께 성장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입니다. 학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정을 말하는 겁니다. 가는 길은 서로 달라도 내가 가는 길을 알아보고
지켜보며 응원해줄 좋은 친구, 좋은 선·후배만큼 인생에 큰 자산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은 명실상부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기초연구에서부터 국가·사회의 현안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최상의 멘토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시설과 장학금혜택이 있고, 공익활동에 참여할
기회도 있으며, 여러분의 학업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울 점이 있는 훌륭한 친구들이 있고, 여러분이
이어갈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길에 동참하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を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2. 2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한 기 정

10년 후를 내다 보고 사람에게 투자한 다

“로펌의 동문들이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공익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로펌의 사회적 역할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 없이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뢰관계를 구축해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로펌 모델을 만들어왔고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로펌의 기부와 공적 역할에 대해 묻자, 안용석 변호사가 10년 후의 미래를 강조하며 한 말이다. 1989년 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후 곧바로 한미합동법률사무소에 입사한 안용석 변호사는, 이후 한미합동법률사무소와 (구)광장의 합병으로 법무법인(유) 광장이라는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광장맨’으로 함께했다. 2018년부터는 광장 대표변호사로 재직해 광장을 이끌어왔다. 기업 법무, 특히 공정거래 업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인 안용석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한국 산업 발전의 ‘최전선’에서 활동해왔다.

“80년대 후반, 광장에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연수원 수료 직후 로펌을 택하는 변호사들은 소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번역 아르바이트를 했던 광장에서 로펌의 비전에 대해 선배들에게 물었을 때만 해도, 한국 기업의 성장이 불확실하기에 확답을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와 같이 가자!’는 생각으로 로펌 변호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Joint Venture’라고 불렀던 M&A 분야를 시작으로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성을 쌓아가면서 우리 기업과 함께 성장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당시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업 반열에 오른 삼성조차 ‘소니나 GE를 벤치마킹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기업의 세계적인 성장이나 해외 시장 진출의 성공 가능성을 누구도 점칠 수 없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안용석 변호사는 미래를 대비했다.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시작했던 스터디를 군법무관 시기까지 이어 나가며 국제거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동료들과 함께 키워나갔다. 한국 기업의 성장과 함께 로펌 기업자문 분야도 급속도로 성장하며 그의 미래에 대한 대비도 빛을 냈다. 국제거래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두었던 만큼 그를 믿고 찾는 고객들이 늘어났다. 공정거래 부문에 대한 안용석 변호사의 전문성이 쌓여갈수록 전문성을 지향하는 광장의 경영과 시너지가 생겼다. 로펌 경영에 관여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본인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을 넘어 좋은 인재들과 함께 성장하는 데 관심을 쏟았다.

“변호사들이 스스로 존중받고 일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성에 대한 신뢰와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

들의 전문적 역량을 최대한 키워, 각 변호사와 로펌의 관계가 변호사가 로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역시 ‘어떤 일은 ○○○변호사만 할 수 있다’는 사고로 변호사에게 의지할 수 있는 ‘Interdependent’한 로펌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2018년 광장 대표변호사로 취임한 이후, 안용석 변호사는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것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특히 그가 항상 미래를 내다보며 전문성을 키워왔듯, 앞으로 1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며 국제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 키워나가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국내 사모투자(PE)와 벤처캐피털(VC)들이 해외로 공격적인 투자를 늘려가고 있고, 개척된 해외 시장의 법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영미의 변호사들이 세계적인 리걸 마켓을 점유하고 있지만, 한국 변호사들의 실력이 출중한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기회는 많아진다고 보았습니다. 국제적 역량을 갖춘 변호사들을 채용해 해외 리걸 마켓에서도 일류로 도약하는 광장의 향후 50년 비전을 봅니다.”

올해 2월로 광장 대표변호사 임기를 마친 안용석 변호사는 이제 파트너 변호사로 돌아간다. 평소 ‘Lawyer Counselling’을 통해 후배 변호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고민에 대해 경청했던 그는, 앞으로는 더욱더 변호사 상담과 후배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안용석 변호사는 리걸 마켓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후배들에게 실력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격려를 남겼다.

“리걸 마켓의 전망은 밝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이 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세계에서 경쟁하고 있는 만큼, 리걸 마켓에서도 더 이상 국경이 없습니다. 저희 세대는 중학교 때 ABC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했는데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후배들은 훨씬 뛰어난 능력이 있음에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용기를 잃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이라면 한국의 리걸 마켓과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후배들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안용석 변호사에게서 후배들에 대한 애정이 묻어 나왔다. 33년 전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척박한 기업자문 법률시장에 발을 내디뎠던 청년 변호사는, 수많은 후배 변호사들의 스승이자 아버지가 된 지금까지도 1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며 사람에게 대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다. 후배들과 끊임없이 교감하려는 그의 젊은 눈동자에서 뜨겁게 성장하는 한국 리걸 마켓의 미래가 보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완 학생기자

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전 원 열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원열 교수가 ‘집단소송의 소송허가요건 및 금전배상에 관한 연구’로 제26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15년간의 법관 생활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금융송무분야 전문변호사로서 명성을 떨친 7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바탕으로 연구자로서도 정진하고 있는 그에게 훌륭한 법학연구란 어때야 하는지, 또 연구자로서의 목표는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먼저 훌륭한 법학 연구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추상적인 질문을 던지자 그는 “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라는 논어 위정편의 고사로 대답을 대신했다. “남의 것을 배우기만 하고 스스로 사색하지 않으면 학문하는 것이 아니고, 사색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오류나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는 공자의 말을 통해 훌륭한 법학 연구자는 단순히 과거에 이미 정리된 이론을 학습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의문이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는 것이어서도 안 됨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계속 학(學)하면서, 동시에 계속 사(思)하는 것이 훌륭한 연구자가 될 수 있는 길임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법학에서 배움과 사색의 균형을 찾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자 그는 법학에서 이론과 실무의 균형감각을 제시했다. 자신 역시 법관과 변호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법이론은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인간들이 제각기 다른 표현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긴 분쟁을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개별 사건에서의 상식적이고 타당한 결론들을 꿰뚫는 통일적 설명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학 연구는 실제 분쟁에서 비롯된 문제를 이론적으로 끝까지 밀어붙여 탐구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분쟁의 양상이 복잡다단해질수록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 법명제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제기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번 제26회 한국법학원 논문상을 수상한 “집단소송의 소송허가요건 및 금전배상에 관한 연구” 역시 그의 이러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었다. 그는 한국에서 집단소송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30년이 넘었고 이미 여러 논문이 나왔지만, 대체로 미국의 논의를 수입해 오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그는 이번 수상 논문에서 만약 미국의 집단소송을 한국에 그대로 들여올 경우 기존에 한국이 이해하고 있던 당사자주의, 법관의 역할, 소송대리인의 역할, 손해론 등과 어떤 충돌이 생길지를 탐구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역량을 학문의 길을 가려는 로스쿨 학생들이 어떻게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그는 기초법 공부를 권하기도 했다. 법철학, 법사회학 등의 수업을 듣고, 고민을 발전시킨다면 단순히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배움을 넘어서 그 과목의 설명이론의 근저에 있는 근본적인 원리를 생각하는 법률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법률적 용어에 낯선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이 되어서 기초법을 수강하면 기초법 이해의 깊이가 달라질 거라는 구체적인 팀도 함께 전했다.

마지막 질문인 연구자로서의 목표와 보람에 대해서도, 기존의 법이론 혹은 도입될 제도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통해 그것의 문제점을 미리 지적해주는 것이라는 일관된 답변을 이어갔다. “한국 사회가 구호에 따라서 움직여 한쪽으로 쏠려갈 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쪽으로 가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줄 수 있으면 그것이 연구하는 보람”이라고 연구자로서의 소회를 밝히는 그에게서 배움과 사색을 병행하면서 이론과 실무의 균형을 찾아가는 법학 연구자의 모범을 그려볼 수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이준엽 학생기자

학생과 함께 ‘더불어 숲’



이 계 정 교수

2021년 10월 28일 이계정 교수가 대학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문)’을 수상하였다. 이계정 교수는 2014년 9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부임한 이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를 융합한 교육을 통해 우수 법률가 양성에 힘써왔으며, 학생들에게 공익 추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다른 교수님들 및 학생들과 꾸준히 소통을 이어나가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힌 이계정 교수를 만나 로스쿨 법학 교육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Q.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수업 중에 ‘더불어 숲’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은 대부분 안정적 직업을 영위할 특권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학생들이라는 나무의 뿌리에 양분을 주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뿌리에 사회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변과 더불어 하나의 숲을 이루기 위해 공동체에 기여할 바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고의 대학에 다니는 우수한 학생들인 만큼, 홀로 하는 공부뿐 아니라 ‘공익 추구’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Q. 수준 높은 강의로 항상 높은 강의평가를 받아왔다. 수업의 내용은 물론, 진도, 강의시간 조절 등 수업 전반에 있어 철두철미하다는 평이 높다. 민법 수업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달라.

과거 판사로 근무하며 재판을 준비했던 것처럼 수업에 임한다. 수업을 준비할 때에도 재판에서처럼 철저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이 민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민법 교육에 있어서는 첫째로 학생들에게 민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며, 둘째로 이론과 실재를 어떻게 결부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심어주며, 셋째로 학생들 스스로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답식 수업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학생

들이 ‘잘 담겨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로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Q. 여러 특강과 면담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연구로 바쁜 가운데서도 학생들과 소통을 멈추지 않는 원동력의 무엇인가.

우선, 스승이신 김재형 대법관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후학들에게 다시 베풀려고 한다. 언제나 연구실을 찾아보면 하시던 연구를 잠시 접고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던 김재형 은사님처럼, 학생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며 소통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인간에 관한 관심과 애정이 많은 편인 것 같다.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과거 나 자신이 학창시절 때 했었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각자의 고민에 귀 기울이는 일은 그 자체로 의미 있지 않을까.

Q. 학술연구교육상 수상 이후, ‘법전원 교육에 대한 단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법전원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수는 ‘잡은 물고기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한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법학 전반에 대해 많은 지식을 전달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로스쿨 교육이 일방적인 지식 전달로 흐를 위험성이 있는 것 같다. 소규모 세미나 수업 등 토론식 수업을 활성화하여 ‘지식의 주입’보다는 법학에 있어서의 철학, 기저의 흐름과 같은 ‘근본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I learn, You learn, We learn”,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웃음 짓는 이계정 교수의 모습에서, 이제 막 자라나는 묘목들과 함께 ‘더불어 숲’을 키워나가는 아름드리 소나무의 모습이 보였다. 서울법대에서 이계정 교수가 꾸려나가고 있는 숲이 점점 뽕어나가, 사회의 소외된 이들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꿈꿔 본다.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완 학생기자

법정에서 교단으로: 10년 차 신입 사원의 각오



고 유 강 교 수

고유강 교수는 2021년 9월 서울대학교에 부임하여 민법을 가르치고 있다. 고유강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해군 법무관을 복역하고, 2015년 서울중앙지법 신입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동부지법 판사, 대전지법 서산지원과 홍성지원 판사 등으로 재직하였다. “15동 법대 5층 도서관이 처음 신설되어 첫 입주자가 되던 학창 시절만 하더라도 교수로 서울대학교에 다시 오게 될지 예상하지 못했다. 좋은 기회가 주어진 데에 감사하고 큰 영광이자 부담으로 여긴다.”라며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 서울 법 대 와 14 년 의 동 행

2006년에 학부생으로 입학하여 2019년 박사수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2021년 교수로 부임하기까지 서울법대에서 세월을 보냈다. 그동안 학교가 많이 바뀌었냐는 질문에 “교내 카페가 처음 열렸을 때 학부생이었는데, 개업 이벤트로 열람실에 샌드위치 200개를 돌리던 사장님이 생각난다. 사장님과 지금도 종종 마주치면 서로 얼굴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인사를 나눈다. 학교도 물리적으로는 익숙함이 더 크지만 마음은 새롭다.”며 감상을 전했다.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학생 시절, 의외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동아리였다고 한다. 그는 보컬합합 동아리 Triple-H 2기 보컬로 동아리실에서 노래를 연습하고, 경제법학회장으로 모의공정거래위원회 준비를 했던 순간들을 기억했다. 우연히 학교에 들렀을 때 만난 Triple-H 1기 선배의 권유로 2021년 신입생 면접관으로 참관하여 슈퍼스타K 심사위원과 같은 표정으로 멘트를 던졌다는 일화에 한참을 웃었다. 사법시험 1차를 여섯 달 앞두고 수험서 네 권을 통째로 도난당한 중앙도서관. 수험생활 스트레스를 풀고자 스타디원들과 게임방에서 하루를 지새운 녹두거리. 그 배경은 언제나 학교였다.

— 민 법 학 자 , 판 사 가 되 기 까 지

민법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를 묻자 그는 “역사도 길고 범위도 방대한 동시에 세밀한 이해조정까지도 담는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 특히 학부 때 김형석 교수님의 민법 수업을 들으며 더 공부하고 싶어졌다.”

라고 말했다. 해군법무관을 전역한 이후 6년의 판사로서 삶은 민법학의 삶과 연장선상에 있었다.

판사 생활에 관해 “즐겁지만은 않았지만 보람찼다. 민사, 형사, 가사, 집행을 모두 맡아본 덕에 배운 것들이 분쟁에서 실제로 어떻게 문제되는지 알 수 있었고, 지금까지 배운 교육과정이라 다 쓸모 있다는 기분을 느꼈다.”며 소회를 밝혔다. 다만, 많은 학생이 법원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관해 “기록을 통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매우 한정되어 있는데 사실인정에 앞서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많다. 나름 최선의 결정이었지만 맞는 결론인지 지금도 확신이 가지 않을 때도 있다. 학생들도 워라밸만 보지 말고 판사의 결정과 법복이 주는 무게감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며 법원 직렬 선택에 앞선 당부의 이야기를 전했다.

— 돌 아 온 서울 법 대

올해 고유강 교수는 민사실무연습 수업으로 3학년을 만난다. “이계정 교수님의 수업을 이어받게 되어 부담이 크지만, 교수님의 검증된 방식을 이어받아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걱정과 다르게 강의자료가 너무나 쉽게 정리되어있어 이미 학생들이 학원가 자료 대신 고유강 교수의 강의자료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자, 그는 “실제로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쓸만한 자료를 만들고 싶었다.”라며 반색했다. 이어, “앞으로는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학문적 성장을 돕는 것을 넘어 직접 만날 기회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다.”고 밝혔다.

교수라는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무한한 자유라고들 한다. 이에 고유강 교수는 당분간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연구와 가르치는 경험을 모두 충실히 쌓는 데에 온전히 쓰고 싶다고 밝혔다.

“법조경력 10년 차에 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자 합니다. 언제 또 생길지 몰랐던 좋은 기회를 잡게 되어 기쁘고 잘 부탁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안재서 학생기자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나 희 석 검 입 교 수

Q.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검임교수로 검찰실무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나희석 검사입니다. 저는 199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2003년에 졸업하였고, 사법연수원과 군법무관 복무를 거쳐 2011년 검사로 임관하였으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한 것은 2020년 9월부터입니다.

Q. 검사가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사익이 아닌 공익적 가치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공직에 매력을 느꼈고, 형사절차에서 ‘중립적 판단’에 역할의 방점이 있는 판사보다는 법률전문가이면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의 형사절차 전반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검사에 더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법무관 생활을 마칠 즈음 검사와 판사 중 어느 직역을 선택할지 잠시 고민하였으나 초심대로 검사를 선택하였고, 그 선택에 대해 후회한 적 없는 걸 보면 검사 직역이 제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사의 역할 중 고위 공직자부패, 기업비리 등과 같은 주요 범죄에 대한 전문성 있는 직접 수사,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사법통제 기능에 큰 매력을 느꼈고, 공익의 대표자이자 정부의 변호사로서 법무부는 물론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여러 훌륭한 분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여 검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Q. 검사로 근무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원주지청 시절 수사했던 건강보험공단 보조금 편취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당시 청 구 성원이 청장님부터 방호원에 이르기까지 전체 63명이었는데, 첫 압수수색에만 45명이 동원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국외환련을 떠나기 직전까지 바빔 때는 하루에 2~3시간 정도밖에 못 자며 몇 달간 수사하느라 힘든 점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총 50억원의 보조금 편취 사실을 적발하여 대기업 임원 및 병원 관계자들 24명을 사범처리 하고, 보조금을 40만 명의 환자들에게 전부 환원할 수 있었습니다. 저호봉 검사 시절에 마음 맞는 수사관 두 분과 의기투합하여

열정적으로 진행했던 사건이라 아직도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Q. 교수로서 생활하며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학교에 와 제가 실무에서 검사로서 별다른 고민 없이 일상적으로 해왔던 업무들의 의미와 성질, 한계 등에 대해 학문적 관점에서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좋았고, 예비법조인들을 통해 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관점이나 생각들을 접하면서 사고나 시야가 넓어지고 유연해지는 것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능력과 인품을 갖춘 훌륭한 예비법조인들에게 검사 직역에 관해 직접 안내할 수 있었고, 신입검사 선발 절차 개선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보람 있었습 니다.

Q.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바뀌면서, 학생들이 법조의 각 직역에 대해 실질적인 체험을 하지 못한 채 진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 직역에 경험을 갖고 있는 교수는 물론 해당 분야에 이미 진출한 선배들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한 후 진로를 선택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유능한 후배들이 공직에 많이 진출하여 공익에 봉사하고 국가와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합니다.

Q. ‘바람직한 법조인’의 자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법조인은 직역에 따라 역할과 기능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모두 법의 지배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법치주의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습득한 법률지식을 기계적·형식적으로 이용하는 법기술자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각종 위법과 부패로부터 선량한 시민과 공동체를 보호하며 사회적 약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열정과 순수한 초심, 변화의 물결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두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신두섭 학생기자

난민·이주민

모의재판대회

준비하기



이 하 경 · 노 선 우 · 이 은 현 학 생

난민·이주민 모의재판대회는 난민·이주민 인권 문제에 대한 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고취하고 식견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모의재판대회이다. 2021년 8월 31일 열린 본 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미그랜드((ImmiGrand) 팀의 노선우, 이은현, 이하경 원우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대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달라.

노 선 우 | 생소한 분야였는데, 해당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변호사들이 난민·이주민 관련 법제에 대해 특강을 진행하여 대회 준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 하 경 | 출입국 및 난민·이주민 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대한변호사협회, 재단법인 동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대회이다.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를 주제로 서면을 작성해볼 수 있었다.

이 은 현 | 예선과 본선으로 이루어지며, 사안에 관해 원고 측 소장과 피고 측 답변서를 각 25장씩 작성한다. 예선에서는 서면만을 제출한 후, 본선에서는 원고 측과 피고 측을 각각 1번씩 변론한다. 결선에서는 랜덤으로 원고 측 혹은 피고 측을 담당하여 변론하게 된다.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지만, 올해는 대면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다.

Q. 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노 선 우 | 1학년 1학기 <인권법> 수업을 들으며 다양한 인권 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됐다. 관련한 의미 있는 활동을 찾던 중 함께 수업을 들은 조원들과 참여하게 됐다.

이 하 경 | 방학을 보람차게 보내고 싶다는 마음에 각종 대회 안내문이 게시되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마침 관심사가 비슷하고 마음이 맞는 조원들이 있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이 은 현 | 1학년 1학기 <인권법> 수업에서 난민 관련 주제를 다룬 적이 있기에 세 명이 같이 대회를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해 참여하게 되었다.

Q. 준비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과 이를 극복한 방법은 무엇인가.

노 선 우 | 배우지 않은 행정법적 쟁점들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이 하 경 | 2021년에 처음 개최된 대회여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 하지만 팀원들과 함께 자료를 조사하고 법리를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준비과정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은 현 | 1회이다 보니 전년도 우수답안이 없어서, 또한 서면 자체를 작성해본 경험이 없었기에 형식을 맞추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 그럼에도 대회 주최 측에서 여러 차례 특강을 진행하는 등으로 도와주어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Q. 수상소감과 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노 선 우 | 대회를 통해 직접 서면을 작성하고 변론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좋았다. 아직 판례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분야인 만큼, 기존의 판례에서 벗어난 독창적인 시도를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 하 경 | 평소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난민·이주민 분야를 공부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를 계기로 인권 분야와 관련한 관심을 지속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관심사를 확장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이 은 현 | 대회를 준비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팀원들과도 많이 친해질 수 있었고 1학년 여름방학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다는 점도 장점이었다. 직접 서면을 작성하고 변론한 후 변호사님들께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법학전문대학원 신두섭 학생기자

뒤돌아보면서도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제 63 회 대 학 문 학 상 시 부 문 우 수 작 수 상



박 승 두 학 생

법은 인간의 삶을 보호하고 문학은 인간의 삶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두 학문은 접목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1970년대 미국에서는 ‘법과 문학 운동(Law and Literture Movement)’가 태동하기도 하였다. 법을 공부하며 문학을 놓지 않는 학생이 있다. 지난 2021년 11월 제63회 대학문학상 시 부문에 우수작을 수상한 법학전문대학원 13기 박승두 학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철 학 도 가 법 을 한 다 는 의 미

박승두 학생은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16학번으로 입학하고 5년간 철학을 공부했다. “행복과는 거리가 있는 어린 시절,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방황하던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조언으로 니체를 읽고 철학도로서의 삶을 결심했다고 한다. 아름다운 시로 읽힌 니체, 우리가 생대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중용에 이르기까지. 박승두 학생은 세계에 대한 낙관론에 매료되었다. 전남대학교 김상봉 교수가 함석헌을 인용하며 “철학은 고통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였던 것처럼 그 역시 철학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진로를 틀었다. 그 이유를 묻자 “규범의 세계에서 공부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하버마스는 대화와 유리된 진리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종교로의 철학, 삶의 태도로 철학, 규범으로서 철학을 통해 개인의 세계관을 정립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철학을 더 파는 것보다 현실에 기여하는 규범을 공부하는 것이 유의미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은 호통판사로 세간의 이목을 끈 천중호 판사를 보며 사회복지적 법관을, 다른 날들에는 법대의 여러 멘토를 보며 따뜻한 법조인을 꿈꿨다.

문 학 , 그 중 에 서 도 시

박승두 학생에게 문학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명상상태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양가성의 포용을 통한 진정함의 발견”이라는 그의 표현을 부족하게나마 이해하고자 한 기자의 분석이다. 그렇기에 소설이 아니라 시를 쓴 것은 그에게 너무도 당연하다. “현생에 집중하

다 보면 때때로 직관과 무의식의 세계에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술을 마시거나 다소 피곤한 상태에서 부드러운 필기도구를 잡고 저만의 명상상태에 들어섭니다.” 우수상을 받은 시 <토인비> 역시 6~7개월에 한 번씩 찾는 명상상태의 산물이었다.

<토인비>에는 박승두 학생의 낙관주의가 스며들어 있다. “삶을 낙관하되 지나치게 미화하지 않는 것. 반복에서 회의가 아닌 희망과 발전을 노래하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 그래도 눈물을 꼭 삼키고 믿는 것.” 철학으로 개인의 방향을 극복하고자 했던 중학생은 이제 회의주의를 극복한 법학도가 되었다. 향후 진로계획에 관해 묻자 “로스쿨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로펌 변호사, 공직 등 법조인으로 살고 싶다,”고 답했다. 문학적 감수성이 법학 글쓰기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결국 문학과 법은 그에게 서로 다른 삶의 영역을 채워주는 도구였다. “종종 시를 쓰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아는 판점번호사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들었을 때 동이 났고 그는 첫차를 타고 귀가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안재서 학생기자

토 인 비

오늘 우리의 걷는 마음은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추억에 대해서 맑게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 투명한 물감으로 흐르는 연꽃의 푸르죽죽한 형태화 속으로 오는 건 우리들의 시절 거리도 이제는 없는 휴업에 대하여 알려주는구나 이제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사람의 연속이자 영속일 뿐이라는 가르침을 듣는 고양이 어디론가 폴짝 날아가는 내용새 그것을 잡고만 싶은 욕구 분개하는 민원인 창유리를 가운데 두고 아무리 두들겨도 전도되지 않는 음파를 녹음하고 있는 기억이 이제는 모든 꽃길을 주워서 췌매는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어 난 꽃과 같이 달콤하지는 않아 그러나 어딘가 사로잡혀 있을만큼 피망이 입에 맞는 것도 아니야 꼭꼭 씹으면 단물이 나와서 영양가를 가득 채워줄 거라고 하였지 음 우리는 아무래도 사람이란 것도 사람이구나 조는 지름의 힘 안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원주율에 대하여 끝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자랑하듯이 설쳐대는 학자풍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 나는 머릿결을 쓰다듬어 그림 나는 삶의 의욕을 얻는다 마음 깊이 올라오는 닭동같은 세상의 동심원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출처: 대학신문(www.snunews.com)

2021년 학생 신설 자치단체 창립자 면담

LUDENS | 전원합의체 | In Vino Veritas | 불법(佛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내에는 총 60개에 달하는 다양한 학회, 동아리 등의 자치단체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2021년도에 새롭게 만들어진 네 개의 자치단체, 두 동아리와 두 학회의 창립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춤과 노래, 지친 마음을 훌훌 털고 다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LUDENS 창립자 황석현 학생 / 전원합의체 창립자 장성진 학생

Q. 동아리의 이름과 그 의미를 소개해주세요.

LUDENS 창립자 황석현(이하 황) | 동아리의 이름은 LUDENS로 유희의 인간(Homo Ludens)에서 착안했습니다. 지도교수님이신 원유민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이름입니다. 법학 공부에 몰두하는 로스쿨생들이 건전하게 유희를 즐길 수 있는 습관도 갖추도록 돕고자 하는 동아리의 취지를 의미합니다.

전원합의체 창립자 장성진(이하 장) | 밴드부 동아리의 이름은 ‘전원합의체’입니다. 작년 8월 동아리 설립멤버 11명이 확정되었을 때 각자 이름 후보들을 제출하고 투표를 통해 이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관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모으고 합을 맞추어 가는 것처럼 저희도 각자의 악기가 모여 하나의 음악을 완성해가자는 의미입니다.

Q. 설립 계기는 무엇인가요?

황 | 처음에는 로스쿨 구성원들과 같이 연습실을 빌려 춤을 추는 소소한 취미생활을 즐기고자 서울대 로스쿨 로스누(LawSNU)에 글을 게시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호응을 얻었고, 12기 이태희, 정영운 선배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동아리 창설을 함께할 원우들을 모집했습니다. 동아리 임원진에 지원한 13기 도현호, 이혜빈, 홍서연 원우와 함께 동아리의 목표와 활동을 구체화했고 동아리를 공식적으로 등록했습니다.

LUDENS는 로스쿨생들에게 유희의 인간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춤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2가지로 춤에 대한 즐거움을 깨우치는 것과 기초 체력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장 | 학부 시절 밴드를 꾸준히 해 왔었는데 로스쿨에 진학한 후 밴드가 없다는 사실에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학교생활을 하며 주변 원우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음악을 즐겨 듣고, 밴드 활동도 했었던 원우들이 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상당수의 원우들이 밴드가 있으면 즐겁게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었고, 저희끼리 즐기보다

는 공식 밴드부를 결성해 모두가 함께 즐길 기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현재 전원합의체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정기적인 취미 합주를 통해 건전하게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의 안정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밴드의 꽃은 공연이라 생각하여 봄과 가을에 각각 한 차례 로스쿨 원우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소공연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지난 1년간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황 | 2021년은 동아리를 설립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바쁜 한 해였습니다. 3월에 동아리원들을 모집하고 임원진을 편성한 뒤, 4월에 동아리 등록을 모두 마쳤습니다. 4월부터 비로소 동아리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학기 중 매주 금요일 20시부터 22시까지 교내 체육관의 연습실을 대여하여 춤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한 세션은 스트레칭, 맨몸운동, 기초 춤동작 및 안무 연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의 세 활동은 회장인 제가 맡았고, 세션의 핵심 활동인 안무 연습은 춤 경험이 있는 동아리원들이 돌아가며 진행했습니다. 동아리원들이 각자 알고 있는 춤을 서로에게 가르치면서 품앗이했습니다. 12기 정영운 원우는 브레이킹을, 이태희 원우는 코레오그래피(Choreography)를, 13기 김재경, 최다인 원우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가르쳤습니다.

장 | 모집은 2021년 8월경 완료하였지만, COVID-19 인원 제한과 학기 중 학업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활동은 작년 2학기 중강 후인 2022년 1월부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권영준 교수님께 지도를 부탁드려 허락을 구하고 정식 동아리로 등록한 다음, 지금까지 총 두 차례의 합주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악기 연주 경력이 있는 원우들이라 각자 연습을 해 오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합주를 진행하면서 모두가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1주에 최소한 번씩 두레문예관에 위치한 합주실에서 합주를 진행하면서 방역상황이 허락하는 선에서 3월 소공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Q. 창립자로서 남기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황 | 논리가 가장 중요한 도구이고 품위가 가장 중요한 웃인 법조인에게 춤이라는 취미생활은 생뚱맞을 수도 있습니다. 춤을 출 때는 음악에 담긴 감정에 집중해야 하고 자유분방한 의상이 춤의 일부를 구성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가 로스쿨생에게 오히려 이로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와 일에 매몰되면 업무 능률이 떨어지고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 춤을 마치 인터넷 창고의 새 로고침 버튼처럼 활용하기를 권하겠습니다. 춤을 추면서 잠시나마 일을 잊고 춤동작과 음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2021년 큰 인기를 끌었던 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우먼파이터’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각 팀의 리더들이 함께 무대를 꾸리고 즐기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도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는 제 동료들도 힙합 춤이든 K-POP 춤이든 춤이 아닌 다른 취미이든 진심으로 즐기고 놀 수 있는 활동을 갖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LUDENS가 로스쿨생들이 건전하게 유희를 즐길 수 있는 관문이자 장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장 | 사실 이전에도 선배님들 몇 분이 모여서 밴드를 하기도 하셨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로스쿨에서 공식 밴드 동아리가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기에 아직 그만큼 ‘전원합의체’의 조직과 체계가 취약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삶을 풍성하게 가꾸어 나간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음악을 좋아하는 원우분들이 ‘전원합의체’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대에도 ‘전원합의체’를 직접 거쳐간 원우분들이나 공연에 참석하여 함께 즐겼던 원우분들 모두 밴드 덕분에 로스쿨 생활에서 활력을 얻고 좋은 기억을 가져갈 수 있었다고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악기의 떨림을, 락음악만이 줄 수 있는 두근거림을 함께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와 프랑스, 법의 기원을 즐겁게 탐험하고자 합니다.



In Vino Veritas 창립자 정복현 학생 / 불법(佛法) 창립자 정문환 학생

Q. 학회의 이름과 그 의미를 소개해줄 수 있나요?

In Vino Veritas 창립자 정복현(이하 복) | In Vino Veritas는 ‘와인 속에 진리가 있다,’는 라틴어 속담으로, 원래 술에 취하면 사람이 솔직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와인에 취하듯 로마법에 취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불법(佛法) 창립자 정문환(이하 문) | 불법은 불란서(佛蘭西)에서 따왔습니다. 자유게시판에 ‘불법 하실래요?’라는 글이 큰 호응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Q. 수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로마, 그리고 프랑스인가요?

복 | 학부 교환학생 시절에 우리나라법이 서양법을, 서양법이 로마법을 계수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로스쿨에 진학하여 김형석 교수님의 민법 수업을 들으며 우리 민법의 기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로마법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법은 많은 나라 법의 기원이라는 점에서 연구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 | 프랑스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로마법과 큰 틀에서 비슷할 것 같네요. 우리나라 민법은 독일과 프랑스 민법에서 반반씩 가져왔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 민법과 행정법에 프랑스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례가 많음에도 독일법에 비해 연구가 미진하다고 생각해서 학회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Q. 언어가 장벽으로 작용하지는 않나요?

복 | 원래 라틴어로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학자분들 사이에서도 라틴어 해석에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그나마 정교한 라틴어-영어 번역본을 읽어서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으로 타협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로마법이 적게 연구된 만큼 로마법 연구를 수행한 일본 등 다른 나라 연구를 함께 참고하고자 합니다.

문 | 학회에 불어 능통자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 남효순 교수님 등 교수님들께서 프랑스법 관련 자료 번역에 힘써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로스쿨에서 학회활동을 할 때는 ‘이런 프랑스법이 있구나’를 공유하는 수준으로 세미나가 진행되기 때문에 언어가 큰 장벽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Q. 지도교수님과 교류가 있는 편인가요?

복 | 지도교수님은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본인께서도 법대 연극부에서 활동하셨을 정도로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이셨던 것으로 압니다. 로마법학회를 처음 창립하고자 메일을 드렸을 때 교수님께서 “제가 비록 로마법 전공 교수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고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실제로 학기 중 세미나, 소모임, 뒤폴리, 개강·종강 총회 등 행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문 | 불법의 지도교수님은 고유강 교수님입니다. 작년에 부임하셨는데 프랑스법에 관심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의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교수님께서도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고 흔쾌히 수락해 주셨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주셨습니다. 첫 세미나에도 참여를 약속해주셨고 교수님들께서도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Q. 로스쿨에서의 비교법, 기초법에 관한 창립자들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복 | 일본 교환학생 시절 우리나라보다 비교법연구가 잘 되어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로마법은 우리법의 배경이 되는데 계수나 이식 과정에서 변화, 현대적 변용 등 배울 지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 | 저는 왜 하필 ‘로스쿨’에서 비교법 기초법 연구인지 말하고 싶습니다. 막연함을 구체화하기 위해, 그리고 좁은 시야로는 가지기 어려운 문제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비교법이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례와 비교대조하는 것이 법 논리를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 법학공부의 깊이와 넓은 시야를 모두 도모하는 방법임은 여러 수업을 통해 배웠던 것 같습니다.

Q. 창립자로서 남기고 싶은 말이 따로 있을까요?

복 | 서양법문화사와 관련한 수업이 전국 로스쿨 중에 서울대와 이화여대에만 있다고 들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며 로마법을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기초법과 로마법에 많은 기대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문 | 한국에서 프랑스법 연구가 열악합니다. 불법을 창립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교수님의 많은 도움과 학부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2~30년 후가 되어도 불법이 대표적인 비교법학회로 남아 프랑스 법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안재서 학생기자

로스쿨 시대의 ‘학문으로서의 법학’



권영준 교수



이소은 임상교수



김소연 학생

2008년 로스쿨이 도입된 지 14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학문후속세대’의 멸종’ 혹은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위기’ 같은 말들도 익숙한 수사가 되었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로스쿨에서 실무 교육을 받으며 법학에 진지한 학문적 열정을 보이기가 힘들다는 지적은 타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 속에서 한편에서는 로스쿨 출신 학생들의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숫자가 늘어나면서 로스쿨을 졸업한 전임연구자 세대가 등장하고, 서울대학교 내에서도 학문후속세대 양성센터를 설립하며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책임질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다.

본 기사에서는 이러한 우려와 노력 속에서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권영준 교수, 서울대학교 로스쿨을 3기로 졸업하고 법학 비전공자로서 최초로 로스쿨 교수가 된 이소은 임상교수, 서울

대학교 로스쿨 11기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김소연 학생을 만나 각자의 자리에서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한다는 것에 대해 얘기를 들어보았다.

Q. 본인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연구를 하게 된 계기를 듣고 싶다.

권영준 | 법관으로 일하면서 행복했으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수라는 직업이 끌렸다.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기존에 알던 지식과 새로운 지식, 우리법과 외국법, 이론과 실무, 법학과 다른 학문을 연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다.

이소은 | 원래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고, 학문을 한다는 것도 결국 읽고, 생각하고, 쓰는 작업이므로 다른 직업과 비교하여 적성에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박사학위의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의 민사법적 보호’라는 논문으로 취득했다.

김소연 | 학부 때부터 미술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있었다. 이를 토대로 “배른 협약의 추급권 조항의 국내 입법과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로스쿨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이번 2022년으로 로스쿨을 졸업한다. 논문에서는 최근 거래되는 NFT 미술품과 관련해 계약상 채권으로 이행되는 추급권과의 조화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Q. 다른 학문에 비해 학문으로서 법학이 가지는 매력은 무엇인가?

권영준 | 법학은 깊이 있는 이론을 가진 동시에 실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규율한다는 두 가지 매력을 갖추고 있다. 이 중에서 사회현상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나가는 매력을 강조하고 싶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기서 법학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

이소은 | 법학의 가장 큰 매력은 실용 학문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학술적 논의가 추상적인 차원에 머무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학문에 흥미를 느끼는 편이다. 학부에서 전공한 영어학과 비교하면, ‘모든 언어에는 규칙이 있다’는 언어학의 핵심과 규칙을 다루는 법학의 공통점에 흥미를 느꼈다.

김소연 | 학부에서 경영학을 배우면서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공부하였다면 법학은 회사에 국한되지 않고 법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했다. 개인적으로 논문을 쓰면서 현재의 법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공부해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Q. 좋은 학문연구란 무엇인가? 혹은 로스쿨 시대에 법학의 연구는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권영준 | 법학의 역사가 긴 만큼 법학자들의 역할은 법학이라는 거대한 성에 벽돌을 하나씩 얹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내용만 되풀이해서도 안되고, 기존 내용과 연결되지 않는 내용을 없애서도 곤란하다. 또 한 가지 정답을 강요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변증법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성을 쌓아 올려 나가는 것이 좋은 학문연구라고 생각한다.

이소은 | 학문적 성취란 결국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것을 생각해내거나, 남들이 답하지 못한 문제에 답을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연구와 실무가 어느 정도 분리되었다면 로스쿨 도입 이후에는 연구를 하다가 실무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실무를 하다가 연구를 할 수도 있다. 법학 분야에서 학제적 연구의 비중이 커지고, 다른 학문의 연구방법, 특히 실증적 연구도 널리 활용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김소연 | 석사학위 논문에 국한해서 말하자면, 지도교수님 및 심사해주시는 교수님들의 코멘트를 잘 반영하면 내용적으로는 준수한 논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로스쿨에서의 석사학위논문은 절대적인 시간의 한계가 있지만, 특히 기존 판례와 관련된 분석 부분에서 법을 실무에서 활용할 예비 법조인들의 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Q. 로스쿨 학생들이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참여하여 석사학위 논문 작성하는 것을 권하는지?

권영준 |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의 1차적 목표는 장래의 학자를 양성하는 것이고, 2차적 목표는 학자적 소양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홀로 떨어져 공부하기보다는 일종의 동아리처럼 서로 배우고

동기도 부여할 수 있는 학문 커뮤니티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좋은 법률가가 되려면 좋은 글쓰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석사학위 논문 작성은 가장 좋은 글쓰기 훈련이므로 도전해 볼 것을 권한다.

이소은 | 석사학위 논문을 써보지 않은 채로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박사과정을 염두에 두고 계산 후배님들은 꼭 석사학위 논문에 도전해보시면 좋다. 그러나 만약 논문을 쓰는 것이 로스쿨 생활의 다른 측면인 건강 관리, 교우 관계, 변호사시험 준비 등에 크게 방해가 된다면, 굳이 권하고 싶지 않다.

김소연 | 센터의 도움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받았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고, 후배들에게도 적극 권한다. 우선 내용적으로 지식재산법과 관련한 이슈를 공부하면서, 논문을 작성하면서 관련 논문을 읽고 공부하면서 한 주제를 상대적으로 깊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또한 기본 법학 과목들에서 배운 지식이나 사고 능력이 논문 작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기본 법학 공부의 중요성을 역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

Q. 학문의 길을 가려는 로스쿨생들에게 조언을 바란다.

권영준 | 변호사 시험 대비를 하면서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법학의 정수를 맛보기 위해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의 프로그램에 동참해 볼 것을 권한다.

이소은 | 먼저 로스쿨에 재학 중인 후배들이 쓴 논문을 보면 선배로서 자랑스럽다는 말을 먼저 전하고 싶다. 논문 주제는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논문 작성 경험이 있는 선배나 지도교수님과 상의를 거쳐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혼자서 주제를 설정할 경우 실제로 논의의 실익이 없거나 다른 연구자들이 관심 없는 주제라는 것을 모를 수 있다. 또한 ‘있어 보여서’ 자신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개념이나 외국의 논의를 끌어오기보다는, 너무 멋을 부리지 않되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글을 쓰려고 노력하면 좋겠다.

김소연 | 로스쿨에서 연구는 주제를 적절한 규모로 정하면서도 진호흡으로 공부하고 글을 써 내려갈 흥미로운 것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스쿨 생활과 논문작성을 병행하면서 둘 다 놓칠까하는 걱정으로 정서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같이 논문을 쓰는 친구와 지도교수님과 소통을 하면서 이겨내길 권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이준엽 학생기자



난민·이주민 모의재판 대회, ‘레인보우 레퓨지(Rainbow Refugee)’ 팀 최우수상 수상

대한변협이 재단법인 동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동인 공익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공익사단법인 정이 함께 개최한 ‘난민·이주민 모의재판 대회’가 2021년 8월 21일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대회 결과 최우수상은 서울대·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최호연, 박남선, 신세경 학생의 ‘레인보우 레퓨지(Rainbow Refugee)’ 팀이 수상했고, 우수상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하경, 노선우, 이은현 학생의 ‘이미그랜드(ImmiGrand)’ 팀이 받았다. 박수빈, 김연주, 이창희 학생의 ‘새벽별’ 팀은 장려상을 받았다.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본선에 진출한 6개 팀이 두 번의 예선과 결선을 거치며 진행되었다. 재판부는 총평에서 “참가자들의 서면이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으며 법률가가 갖추기 어려운 창조성까지 갖추고 있어 적잖이 놀랐다.”고 평가했다.

제8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 우등상 수상 등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주최하는 ‘제8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가 2021년 8월 25일 원격 영상재판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회 결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창민, 유지수, 조성재 학생이 우등상, 송성윤, 김현우, 김효경 학생이 특허청장상, 박상규, 임서현, 조서현 학생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 강신찬, 김진홍, 신승원 학생이 한국특허법학회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서면심사를 통과한 특허 부문 16개 팀(48명)과 상표 부문 8개팀(24명)이 본선에 진출했고, 특허부문 4개팀(원고, 피고 각 2개팀)과 상표부문 2개팀(원고, 피고 각 1개팀)이 결선에 진출했다. 이번 대회 결선에 진출한 특허 부문 6개팀과 상표·디자인

부문 4개팀에게는 특허법원 심화연수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비대면 입학설명회 개최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설명회가 2021년 9월 6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는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설명회에서는 학교에 대한 소개, 2009~2021년 입학전형 결과 설명,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계획 안내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이번 설명회는 COVID-19사태로 인해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선착순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하였다.

제10회 학생 홍보대사 임명식

제10회 학생홍보대사 임명식이 2021년 10월 27일, 17동 207호에서 진행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한동희, 천예린, 최유연, 황유라 학생이 홍보대사로 임명되었으며, 이들은 앞으로 1년 간 입학설명회, 국제교류 외빈방문을 포함한 학교 행사를 지원하게 된다. 임명식은 임명장 증정과 단체사진 촬영으로 이루어졌다.



제2회 서울법대 모의법정대회 개최

2021년 11월 20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동 3층 모의법정에서 ‘제2회 서울법대 모의법정대회’를 개최하였다.

로스쿨 실무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법정변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모의재판> 교과목을 수강하는 2학년 재학생 전원이 3~5인씩 팀을 이루어 예선에 참가하였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 2021년 11월 13일 법정변론 방식으로 4강 대회를 진행하였으며, 4강에서 승리한 두 팀이 결승전에 참여하였다.

결승전에 오른 원고팀(정우영, 김세원, 김현재, 윤혜연)과 피고팀(정지영, 김동석, 김현우, 이철민, 장재완)은 서울법대 출신 선배들이 전현직 대법관들(조희대, 김재형, 김소영 대법관) 앞에서 열띤 경연을 벌였다. 대상은 피고팀(정지영, 김동석, 김현우, 이철민, 장재완)이 차지하였고, 최우수변론상은 피고팀의 김현우 학생이 수상하였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2019년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제1회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올해는 재판부와 참가팀 학생들만 실제로 참

여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통하여 동문들에게 경기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2회 대회를 개최하였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번 대회에서 방역을 위하여 최소인원만이 대회 현장에 참석하고, 체온측정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회를 주최한 한기정 원장은 개회사에서 “훌륭한 선배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 앞에서 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무교육의 현장이자, 그동안의 성취를 교수님들과 선배들에게 뽐낼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제6회 학봉상 시상식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021년 12월 1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제6회 학봉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학봉상은 재일동포 실업가였던 故학봉 이기학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상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학봉학회와 후원,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협찬을 받아 연구논문, 법학논문, 언론보도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

연구논문 부문은 교육 측면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교육과 사회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공모하였다. 다수의 응모작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상 1편, 장려상 1편을 선정하였다.

법학논문 부문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연구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자 전국 25개 법전문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주제로 논문을 공모하였다.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을 선정하였다.

또한 올해 새롭게 수상작을 선정하게 된 언론보도부문은 한일 관계 개선과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한 언론 보도 및 언론인을 추천받아,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특별상 1건을 선정하였다. 수상작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봉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문) 수상기념 특별강연

2021년 12월 14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암홀에서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

(교육부문) 수상기념 특별강연’이 온·오프라인으로 열렸다. 강연회의 연사는 이번 해에 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문)을 수상한 이계정 교수로 “법전문 교육에 대한 단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 교수는 약 70여 명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법전문 교육이 진로에 도움이 되었는가, 법전문 수업에 만족하는가, 귀하가 교수가 된다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주제로 한 설문을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느끼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중심으로 강연을 실시하였다. 이 교수는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동시에 학생들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자세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하였다. 강연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학생들과 있었던 대화를 예로 들며, 교수가 학생들의 입장에 다가가 좁히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교수는 교수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아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이번 특별강연은 마무리 되었다.



2022학년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2021년 12월 21일 서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2022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202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은 총 151명으로 원장단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신입생 입학과 학교생활에 대한 안내가 이어졌으며, 이후 재학생들과 조별로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대전회통(大典會通) 반환에 따른 감사패 전달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022년 1월 5일 법학도서관 전·현직 관장(최봉경, 송옥렬, 이우영 교수)에게 대전회통(大典會通) 반환에 따른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대전회통은 1865년(고종 2)에 대전통편(大典通編) 이후의 수교와 조례 등을 종합해 편찬한 조선시대 최후의 통일 법전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전신인 법관양성소에서 교재로 사용되어왔으나 이후 분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10월에 졸업생의 신고로

경매사이트에 대전회통이 매물로 올라온 것을 발견하고, 2021년 8월 대전회통 인도 소소 항소심에서 서울대학교가 승소하면서 반환받게 되었다. 대전회통은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 도서관 자료실에서 보관하고 있다.



제13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팀 민사 대한변협회장상 수상 등

2022년 1월 6일과 7일 양일 간 대법원이 주최하고 사법연수원이 주관하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률신문사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제13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본선과 결선 경연이 치러졌다. COVID-19 여파로 전면 원격영상 재판 방식(온라인)으로 진행된 작년과 다르게, 올해 본선은 비대면, 결선은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38팀, 414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이 펼쳐져, 민·형사 각 16개 팀이 본선과 결선을 통합한 경연에 진출해 실력을 겨뤘다. 민사부문에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다인, 김재경, 한기웅 팀이 준우승하여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수상했으며, 형사부문에서는 하다현, 박지은, 김영진 팀이 결선에 진출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단체부문에서 종합 성적이 두 번째로 높은 학교에 주어지는 평등상도 수상하였다.

제11회 변호사시험 학내 실시

법무부는 2022년 1월 11일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주요 대학 내 시험장에서 제11회 변호사시험을 실시하였다. 1일 차에는 공법, 2일 차에는 형사법 시험을 진행했으며, 3일 차에 휴식을 한 후, 4일 차부터는 민사법 선택형과 기록형을, 5일 차부터는 민사법 사례형과 선택법을 진행하였다. 선배들이 실시일만 모아준 기부금으로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이 제공되었다. 시험 결과는 2022년 4월 22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팀 금상 수상 등

2022년 1월 21일에 열린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너에게 가는 길’ 팀이 금상을, ‘타파’ 팀이 동상을 수상했다. 서면심사를 통과한 8개 팀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원격화상 재판방식으로 진행된 본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촬영, 수술 과정에서의 성추행, 폐쇄회로 녹화영상의 공개 범위 등의 사실관계와 형사소추, 의사면허 취소 등에 따른 의료법의 위헌소

원 등에 대해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기관 측으로 나눠 다투었다. 헌법재판연구원·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경연대회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대학원 법학전공자 58개 팀(174명, 3인 1팀)이 참가했다.

2022학년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새내기배움터 진행

2022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새내기 배움터가 2월 7일에서 2월 9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다. 이번 새내기 배움터는 계약법 개관(권영준 교수), 인권·성평등 교육(김재윤 전문위원), 기초법학과장(이계정 교수), 외부 연사 강연(정상훈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와 학회 소개 및 조별활동 등 레크레이션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2021학년도 전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개최

2022년 2월 25일 ‘2022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비대면(ZOOM)으로 진행되었으며, 행사는 개회사, 학사보고, 식사, 축사, 일반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답사, 학위수여 및 시상, 졸업영상 감상, 폐회의 순서로 이어졌다.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서울대학교서의 생활이 앞으로의 인생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바람직한 법조인의 자세를 갖추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법대 우창록 동창회장 또한 앞으로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것을 바라며 졸업생들이 동창회의 일원이 된 것을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였다. 한편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법학박사 18명, 법학전문박사 2명, 법학석사 15명, 법학전문석사 165명을 포함하여 총 200명에 대한 학위 수여가 이뤄졌다.

2022학년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 개최

2022년 2월 28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100주년 기념관 주산홀에서 ‘2022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이 열렸다. 이동진 학생부원장의 개사, 국민의례,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식사, 천경훈 교무부원장의 학사보고 및 교직원 소개, 천예린 학생 등 학생홍보대사단의 학교 생활소개로 이루어진 이날 행사에는 많은 신입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한기정 원장은 입학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실력과 더불어 인성까지 모두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를 당부하였다. 입학식이 끝난 후에는 각 지도반별로 조별모임의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되었다.



2021 국제 컨퍼런스 개최 “리걸클리닉의 국제적, 지역적 협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는 2021년 11월 18일 ‘리걸클리닉의 국제적, 지역적 협력’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세계 각국의 로스쿨과 법대에서 운영되는 리걸클리닉은 국제적, 지역적인 연대를 통하여 다양한 국제적인 문제와 인권보호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이 국제컨퍼런스는 그동안의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연대를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 미국, 독일,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3개 대륙의 여러 국가에서 직접 참여하여 경험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각 발제자들은 국제적 리걸클리닉을 통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다른 지역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소중하고, 이를 통하여 난민, 기후위기 등 국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을 공감하였다. 참석자 모두가 리걸클리닉의 국제적 네트워킹을 통하여 더 나은 발전방향을 찾아나가는 공동의 과제를 도출하며 자리를 마무리하였다.



제3회 동계 공익법무실습 공익활동 보고대회

2022년 2월 24일 제3회 동계 공익법무실습 공익활동 보고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동계공익법무실습은 매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학생들이 겨울방학 동안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155명의 학생이 장애, 여성, 아동청소년,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30개 기관에서 뜻깊은 방학을 보내고 돌아왔다. 보고대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었으며, 발표팀으로 선정된 9개 프로그램의 대표 학생이 현장에 참석하여 활동내용을 소개하고, 소감을 나누었다. 온라인으로 참석한 학생들 또한 팀별로 대표 학생이 활동 이후의 짧은 소감을 전하면서 아쉬움을 달랬다. 변론준비, 서면분석, 리서치, 의견서 작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무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수업에서 배운 법적 지식들이 현장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배우는 동시에, 공익을 위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예비법조인으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활동한 13기 이지원 학생은 “소년들의 비행이 상당 부분 결핍과 미성숙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회복적 사법이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남겼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활동한 학생들은 “공익법무실습을 통하여 접하게 된 가슴기살균제 사건이 잊히지 않도록, 그리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률가로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공익기관 대한체육회 담당자 박신에 법무팀장은 “참신한 시각에서 검토한 내용들이 업무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해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이번 동계공익법무실습 참여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동계공익법무실습을 지도한 김남희 임상교수는 “답이 나와있지 않은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를 학생들이 협력하며 함께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보고 법조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학생들이 향후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공익법무실습에서 배운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남겼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SNU Law 미래연구자포럼 제1기 워크숍 개최

2022년 2월 15일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SNU Law 미래연구자포럼 제1기 워크숍을 뮤지엄 산(강원도 원주)에서 개최하였다. 오전 학술교류프로그램에서는 먼저 포럼 구성원들의 학위논문 초안 발표 후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고, 2022년 졸업 예정자들의 학위논문 요지발표도 함께 이루어졌다. 오후 문화예술프로그램 시간에는 뮤지엄 산 내 박물관, 미술관, 명상관을 관람하며, 자연과 함께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기회를 가졌다. 마지막 자유토론시간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문연구생활에 대한 평소의 고민을 나누는 장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학위 논문 작성요령 및 논문 완성의 성취감 등의 경험 공유를 통해 각자의 궁극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게 되었다.



연구소·센터 소식

공익산업법센터 제20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2021년 11월 12일 ~13일 제주 The WE 호텔에서 ‘디지털 경제의 조류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항로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20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제1부 동아시아에서의 논의 현황, 제2부 유럽에서의 논의 현황, 제3부 북미에서의 논의 현황, 제4부 종합토론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한국·일본·독일·영국·캐나다·프랑스·미국의 전문가들이 각국에서의 디지털 경제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 현황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지혜를 나누는 토론의 장을 진행하였다.

제80회 & 제81회 공익산업법센터 세미나 개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2021년 9월 24일 ‘인공지능 리스크관리의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제80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희정 교수(고려대)의 사회로 박상철 교수(서울대)가 ‘인공지능 리스크의 유형분류와 그 체계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신수용 교수(성균관대)가 ‘의료분야의 인공지능 리스크와 그 체계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황용석 교수(건국대)가 ‘미디어 분야의 인공지능 리스크와 그 체계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윤혜선 교수(한양대), 김태호 선임연구원(서울대), 정채연 대우교수(포스텍), 이상현 실장(SKT), 김대원 이사(카카오), 김경만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춘환 과장(방송통신위원회)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하였다. 2021년 10월 9일 온라인(zoom)을 통해 ‘인공지능·데이터 기술의 발전과 행정법학의 과제’라는 주제로 제81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원우 교수(서울대)가 사회를 맡은 [제1주제] 발표에서는 ‘키워드 네트워크

와 BERT 모델을 활용한 인공지능 관련 국내의 법학 연구 동향과 함의’라는 주제로 윤혜선 교수(한양대)가 발표하고 임성훈 교수(서강대)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제2주제] 발표에선 ‘데이터 기반 행정의 의의와 쟁점’이라는 주제로 이희정 교수(고려대)가 사회를 맡고, 선지원 교수(광운대)가 발표하였으며 이승민 교수(성균관대)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최계영 연구이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가 사회를 맡은 [제3-1주제]는 ‘공법상 신뢰보호에 관한 연구-독일과 프랑스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김해진 교수(중앙대)가 발표하였고, [제3-2주제]는 ‘공공시설의 무상양도와 융적률 완화’라는 주제로 허지인 변호사(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발표하였다. 아울러 2021년 11월 30일, 저널 ‘경제규제와 법’ 제14권 제2호를 발행하였다.

공익인권법센터, 정당방위 관련 학술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는 2021년 12월 4일 서암홀에서 “정당방위, 정당행위의 실무 현황 분석 및 대안 연구 - 국민참여재판 하급심 판결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센터장(이우영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인섭 교수의 사회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정당방위 적용 범위의 확장 가능성과 그 한계”(서울대 법전원 홍진영 교수), “싸움과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범유경 변호사), “사회상규의 판단 준거로서의 ‘정당한 이익’에 관한 일고찰”(서울대 법무팀 김정현 변호사)의 발표가 있었고, 김상준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조기영 교수(전북대 법전원), 김준호 교수(숭실대 법학과),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의 지정토론과 함께 참가자들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공익인권법센터, 『제14회 국제인권법 강좌』 수료식 개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는 2021년 11월 30일 『제14회 국제인권법 강좌』 수료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수료식은 원유민 주임교수의 수료자 명단 발표, 이우영 센터장 인사말,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14회를 맞이한 『국제인권법 강좌』는 한국과 국제사회에서의 인권법제와 현실에 대한 이해 고취, 관련 현

안 분석과 법제개선 논의의 취지로 기획되었다. 이번 제14회 강좌는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대학의 학부생과 로스쿨생 및 일반대학원생 160여명이 수강하였고, 2021년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강연이 진행되었다.



제12회 모의국제상사중재경연대회

서울대학교 국제통상-거래법센터에서는 2022년 2월 19일 제12회 모의국제상사중재경연대회 (The Willem Vis Pre-Moot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ompetition of Seoul 2022)를 개최하였다. 본 대회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모의 국제상사중재 대회로서 매년 4월 비엔나와 홍콩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국제 모의상사중재 경연대회인 Vis Moot Competition 대회와 동일한 문제로 진행하고 있다. 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대회로 개최되었고, 전세계 30여개의 팀이 참가신청을 하여 그중 국내팀 4팀, 외국팀 4팀이 선발되어 본선대회를 진행하였다. 우승은 연세대 법전원, 준우승은 한동대가 수상하였다.



서울대 경쟁법센터 “통신경쟁법연구회 제4차 콜로퀴엄”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센터장 이봉의)는 2021년 9월 10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103호에서 통신경쟁법연구회 제4차 콜로퀴엄을 개최하였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경쟁법 학술 교류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활성화의 일환으로 2017년 동경에서 제1차 통신경쟁법연구회(通信競争法研究會) 콜로퀴엄(colloquium)을 개최하였고, 올해는 COVID-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비대면 방식(ZOOM)으로 진행되었다. SHIRAIISHI Tadashi 교수(동경대)와 이봉의 교수(서울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1세션은 ‘Discussion of Japanese Competition Law’라는 주제로 VANDE WALLE Simon 교수(동경대)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2세션은 ‘Discussion of Korean Competition Law’라는 주제로 오준형 선임연구원(서울대 경쟁법센터)이 사회를 맡았다. 이번 행사에 일본측에서는 HARA Etsuko 교수(Univ. of Tokyo

and Anderson Mori & Tomotsune), HIRAYAMA Kentaro 교수(Kyushu Univ.), HONG Soongang 교수(Kanazawa Univ.), OHKUBO Naoki 교수(Gakushuin Univ.), TAKIZAWA Sayako 교수(Tohoku Univ.), ONODA Shiho 연구원(Univ. of Tokyo), OGAWA Satoshi 박사과정생(Univ. of Tokyo, and Nagashima Ohno & Tsunematsu), TSUNODA Tatsuya 박사과정생(Univ. of Tokyo and Nishimura & Asahi)이 참여하였고, 한국측에서는 황태희 교수(성신여대), 손동환 교수(성균관대), 임용 교수(서울대), 박세환 교수(서울시립대), 윤성운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박준영 연구위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이혜승 박사과정생(서울대)이 토론 패널로 참여하였다.



서울대 경쟁법센터·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고려대 ICR센터 공동학술세미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2021년 9월 2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고려대 ICR센터와 공동 주최로 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Hybrid)방식으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김형배 원장(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1세션은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이봉의 교수(서울대, 경쟁법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법적 쟁점에 관한 최근 논의’라는 주제로 최난설현 교수(연세대)가 발표하였다. 남재현 교수(고려대), 심재한 교수(영남대), 김지홍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토론 패널로 참여하였다. 2세션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해외 경쟁법 동향’이라는 주제로 이항 교수(고려대)가 사회를 맡았으며, ‘미국 빅테크 플랫폼 패키지 법안에 관한 소고’라는 주제로 박준영 연구위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하였다. 이호영 교수(한양대), 이선희 교수(성균관대), 정영진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는 토론패널로 참여하였다.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2022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2022년 2월 24일 공정거래 실천모임, 고려대 ICR센터,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와 공동 주최로 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Hybrid)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봉의 교수(서울대, 경쟁법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2022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조성욱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이 발표하였다. 이항 교수(고려대), 홍대식 교수(서강대), 오승돈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한로)가 토론패널로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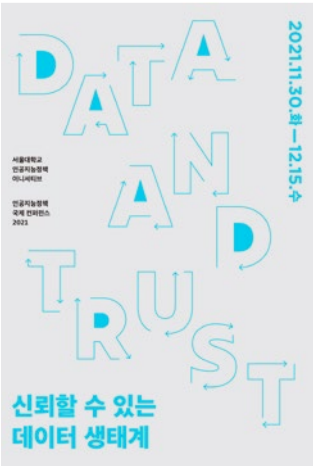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국내학술세미나 개최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는 2021년 12월 17일, 한국법학교수회 그린뉴딜법정책위원회와 공동 주최하는 국내학술세미나 [그린뉴딜 시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체계 구축]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문승일 교수(서울대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가 ‘탄소중립과 전력망의 변화’, 이재협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RE100 캠페인과 전력구매계약(PPA)을 중심으로-’, 전두영 변호사(환경부)가 ‘석탄화력발전 퇴출과 손실보상’을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박시원 교수(강원대 법전원), 김영환 본부장(한국전력), 박진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친환경 전력에너지 시스템과 법체계에 관한 열띤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인공지능정책 국제 컨퍼런스 2021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SAPI)는 2017년부터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한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참여하는 Seoul AI Policy Conference를 매년 진행해 왔다. 2021년 컨퍼런스는 디지털 거버넌스의 핵심 표지로 자리잡은 “신뢰성” 문제를 데이터 생태계의 맥락에서 세밀하게 조망하는 행사를 기획하였다. 인공지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한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고인들을 제도적 및 기술적 측면에서 균형있게 논의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의 형성을 위한 인공지능 정책의 미래의 단초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번 연례 컨퍼런스에서는 [Atlas of AI]의 저자로 사회정치적 관점에서의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킨 Kate Crawford 교수를 비롯해 국내외 인공지능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8

회에 걸쳐서 인공지능 정책의 최신 현황과 방향성을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올해 행사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세미나 형태로 발표자와 참여자들이 실시간으로 호흡할 수 있는 질의 응답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하여 활발하게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2021년 제1회 울춘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 개최

서울대학교 법이론연구센터는 2022년 1월 17일 법무법인 울춘 렉처홀에서 ‘제1회 울춘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울춘 기초법학 논문상은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술상으로, 법이론연구센터가 제정하여 법무법인 울춘과 사단법인 온율이 후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7개 법학전문대학원과 3개 일반대학원에서 총 32편에 달하는 다수의 논문이 출품됐다. 당초 계획은 대상 1편과 우수상 2편을 시상하는 것이었으나, 우수한 응모작이 많았기 때문에 시상 내용을 대폭 확대하여 우수상 1편, 장려상 5편을 추가로 선정했다.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장민국 학생의 논문 “피고인의 관점에서 본 국민참여재판의 의의”가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장려상 수상작들은 서울대 법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이론연구센터는 오는 봄에 창간하는 학술지 『기초법학연구』에 이번 수상논문들을 수록하여 발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매년 기초법학 분야의 우수한 논문을 공모할 계획이다.



[아시아법 연구 시리즈 1] 베트남 투자 및 진출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실무 웨비나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이재민 교수)는 2021년 10월 28일 ‘아시아법 연구 시리즈’의 첫 학

술대회로 법무법인(유) 광장과 베트남 법제 관련 온/오프라인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안용석 대표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의 환영사에 이어 행사 1부에서는 장곤중 고문(법무법인(유) 광장)의 사회 하 한윤준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의 ‘베트남 법 및 외국인 투자 개관’, 홍성미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의 ‘베트남 부동산 관련 법제 및 담보 제도’, 이재국 노무관(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베트남 노동법 개관 및 최근 개정규정 등 동향 분석’ 등의 내실 있는 발표와 토론이 전개되었다. 2부에서는 전종익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사회와 함께 김태경 회계사(법무법인(유) 광장)의 ‘베트남 세제 개관 및 외국인계약자세 규정’, 김유환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의 ‘베트남 기업법 및 자본양수도 절차 개관’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전종익 교수(서울대 법전원), 오영걸 교수(서울대 법전원), 최석환 교수(서울대 법전원), 문병철 과장(산업통상자원부), 임형택 이사(키스톤 지에스비)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아시아법 연구 시리즈 2] APAC 관문 싱가포르 비즈니스의 A to Z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는 김·장 법률사무소와 2021년 12월 15일 아시아법 연구 시리즈 두 번째 공동 학술행사로 싱가포르 비즈니스 관련 법제와 실무 웨비나를 기획하였다. 해당 학술행사에서는 정경택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의 환영사를 필두로 이영민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와 유현기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싱가포르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관’을, 김경연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이동미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는 ‘싱가포르 경쟁법과 집행절차의 이해’를, 김혜성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싱가포르의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정책 및 규제 현황’을, 마지막으로 노현식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싱가포르 국제분쟁 해결절차’에 대해 발표하였다.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전종익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사회를 맡아 오영걸 교수(서울대 법전원), 정준혁 교수(서울대 법전원), 김성우 소장(김·장 법률사무소), 싱가포르 현지 금융관계자들과 함께 현지 사무소 개소 후 다뤄진 여러 쟁점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릴레이 도서 추천

릴레이 도서 추천은 법대 구성원들이 고민하면서, 때로는 휴식하면서 읽을만한 책을 여러 교수들이 차례로 추천하는 특집입니다.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일상생활에 상상력을 더해준 작품과 힘들 때 위로 받은 작품으로 추천 드립니다. 앞이 불투명하고 내 감정조차도 알 수 없을 때 읽은 책이 마음에 깊이 남는 것 같아요. 바쁜 학교생활에도 틈틈이 말랑말랑한 책을 읽으며 건조한 일상에 촉촉한 비를 뿌려주길 바랍니다.

스무 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	나목	꾸뻬 씨의 행복 여행	달콤 쌉사름한 초콜릿 (원제 뜻: 초콜렛 물처럼)
Fui solo como un tunel. 나는 터널처럼 외로웠다. 한 문장으로 사로잡는 사랑과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에 관한 시. 파블로 네루다 민음사 2007	1950년대 그 시절 서울을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마음을 이루만지는 문제가 주는 힘으로 전달하는 삶의 이야기. 읽으면서 위로받는 작품. 박완서 세계사 2012	나는 지금 행복한가? 라는 생각이 이따금씩 든다면 추천 드립니다.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이야기. 나만의 행복 리스트를 만들어보세요. 프랑수아 트로로 오레빈미래 2004	음식으로 마음이 전달된다면 어떤 감정을 담고 싶으신가요? 다채로운 멕시코 요리의 레시피와 함께 금지된 사랑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당황스러운 정도로 놀라운 마술적 사실주의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초콜렛을 만들기에 적당한 온도인 끓는점에 도달한 물처럼 폭발 직전의 감정을 녹여 요리하고, 음식을 먹은 사람 들이 그 감정으로 변하고 사랑하는 이야기 라우라 에스키벨 민음사 2004

SNU Law 人 캠페인 안내

SNU Law 人 캠페인은 매월 1만원(1구좌)으로 서울법대를 후원하는 정기후원 캠페인이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서울법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SNU Law 人 기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사회공헌기금	— 공적마인드를 갖춘 법률가 및 사회적 리더의 자질을 갖춘 서울법대人を 양성
교육장학기금	—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서울법대人を 양성
학술연구	— 미래지향적인 법학 연구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자로서 서울법대人を 양성
일반기금	— 서울법대 교육 및 인프라 구축

- SNU Law 人에게 드리는 혜택

- 세제 혜택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네이밍 예우
서울법대 홈페이지, 정의의 종 등에 기부자 명단 게재
- SNU Law Family 머그컵 증정
1구좌(1만원) 이상의 정기후원을 약정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SNU Law Family 머그컵 증정

- SNU Law 人 캠페인 참여방법

- 온라인 기부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참여가 가능합니다.
<http://secure.donus.org/snulaw>
(신용카드, 계좌이체, CMS 신청가능)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온라인 기부페이지로 연결 됩니다.
- 전화·이메일
전화 및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채널(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로 연락주시면 참여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전화. 02.880.2448
이메일. lawgiving@snu.ac.kr
카카오톡채널. snulawfund

Next Decade 기금 (발 전 기 금) 안 내

서울법대의 미래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약정 문의

• 전화·이메일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출연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에 약정이 진행됩니다.

• 방문

방문해 주시면 출연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에 약정이 진행됩니다.

전화

02.880.2448

팩스

02.889.7196

이메일

lawgiving@snu.ac.kr

주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210호

세제 혜택

• 개인기부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 공제)

• 법인기부자

당해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세제혜택 비교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기부 시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지정기부금에 비해 더 높은 공제한도를 적용 받습니다.

구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내용	사립학교, 국가지방단체,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등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단체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공제한도	개인	법인	개인	법인
	소득금액의 100%	소득금액의 50%	소득금액의 30%	소득금액의 10%
해당기관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여타 기관	

법 학 발 전 재 단 및 발 전 기 금 출 연 현 황

2021. 9. 1 — 2022. 2. 28											
김정민	10,000	2021.09.06	이의영	30,000	2021.09.10	김효준	10,000	2021.10.05			
강윤구	10,000	2021.09.06	송옥렬	1,200,000	2021.09.13	김정민	10,000	2021.10.06			
이종준	10,000	2021.09.06	(주)넥슨코리아	20,000,000	2021.09.15	강윤구	10,000	2021.10.06			
윤아현	10,000	2021.09.06	서울지방변호사회	3,000,000	2021.09.15	이종준	10,000	2021.10.06			
석소현	10,000	2021.09.06	강민구	50,000	2021.09.23	윤아현	10,000	2021.10.06			
이창규	10,000	2021.09.06	이경준	100,000	2021.09.23	석소현	10,000	2021.10.06			
이종화	50,000	2021.09.06	주식회사 케이티	5,000,000	2021.09.24	이창규	10,000	2021.10.06			
유석호	50,000	2021.09.06	방윤섭	100,000	2021.09.27	이종화	50,000	2021.10.06			
이현선	50,000	2021.09.06	유흥수	100,000	2021.09.27	유석호	50,000	2021.10.06			
오태욱	100,000	2021.09.06	육지희	10,000	2021.09.27	이현선	50,000	2021.10.06			
신혜주	50,000	2021.09.06	익명	20,000	2021.09.27	오태욱	100,000	2021.10.06			
박진호	10,000	2021.09.06	전일호	10,000	2021.09.27	신혜주	50,000	2021.10.06			
김지수	10,000	2021.09.06	정병기	10,000	2021.09.27	박진호	10,000	2021.10.06			
김다연	30,000	2021.09.06	최지석	10,000	2021.09.27	김지수	10,000	2021.10.06			
박은정	10,000	2021.09.06	홍석재	50,000	2021.09.27	김다연	30,000	2021.10.06			
박상록	10,000	2021.09.06	배기철	1,000,000	2021.09.29	박은정	10,000	2021.10.06			
이윤진	10,000	2021.09.06	(주)박영사	11,867,200	2021.09.30	박상록	10,000	2021.10.06			
박정현	10,000	2021.09.06	KOLAA	69,320	2021.10.01	이윤진	10,000	2021.10.06			
구현정	10,000	2021.09.06	최종원	1,000,000	2021.10.04	송백현	700,000	2021.10.09			
홍성혜	10,000	2021.09.06	한국학술정보㈜	108,412	2021.10.05	이의영	30,000	2021.10.12			
김휘재	10,000	2021.09.06	구현정	10,000	2021.10.05	재단법인나온	25,000,000	2021.10.20			
신동일	70,000	2021.09.06	홍성혜	10,000	2021.10.05	강민구	50,000	2021.10.20			
지승민	30,000	2021.09.06	김휘재	10,000	2021.10.05	남승우	20,000,000	2021.10.20			
전경훈	5,000,000	2021.09.08	신동일	70,000	2021.10.05	이경준	100,000	2021.10.20			
한화투자증권	20,000,000	2021.09.08	지승민	30,000	2021.10.05	법무법인(유) 광장	1,000,000	2021.10.22			
정순섭	1,200,000	2021.09.10	박정현	10,000	2021.10.05	법무법인 남산	200,000	2021.10.25			

김동윤	5,000,000	2021.10.25	오태욱	100,000	2021.12.05	장재윤	105,000	2021.12.24
방윤섭	100,000	2021.10.25	신혜주	50,000	2021.12.05	황승환	30,000	2021.12.25
유흥수	100,000	2021.10.25	박진호	10,000	2021.12.05	이인재	35,000	2021.12.27
육지희	10,000	2021.10.25	김지수	10,000	2021.12.05	방윤섭	100,000	2021.12.27
익명	20,000	2021.10.25	김다연	30,000	2021.12.05	유흥수	100,000	2021.12.27
전일호	10,000	2021.10.25	박은정	10,000	2021.12.05	육지희	10,000	2021.12.27
정병기	10,000	2021.10.25	박상록	10,000	2021.12.05	익명	20,000	2021.12.27
최지석	10,000	2021.10.25	이윤진	10,000	2021.12.05	전일호	10,000	2021.12.27
홍석재	50,000	2021.10.25	구현정	10,000	2021.12.05	정병기	10,000	2021.12.27
노주환	30,000	2021.10.27	홍성혜	10,000	2021.12.05	최지석	10,000	2021.12.27
(주)카카오	20,000,000	2021.11.01	김휘재	10,000	2021.12.05	홍석재	50,000	2021.12.27
노주환	30,000	2021.11.02	신동일	70,000	2021.12.05	김찬호	50,000	2021.12.27
노주환	10,000	2021.11.04	지승민	30,000	2021.12.05	원의립	50,000	2021.12.28
김정민	10,000	2021.11.05	박정현	10,000	2021.12.05	김시은	35,000	2021.12.28
강윤구	10,000	2021.11.05	김효준	10,000	2021.12.05	하성재	35,000	2021.12.28
이종준	10,000	2021.11.05	권영준	10,000,000	2021.12.06	전민영(9기)	35,000	2021.12.29
윤아현	10,000	2021.11.05	법무법인 케이씨엘	1,000,000	2021.12.06	정현석	35,000	2021.12.29
석소현	10,000	2021.11.05	법무법인(유) 화우	1,000,000	2021.12.08	이은총	70,000	2021.12.29
이창규	10,000	2021.11.05	법무법인(유한) 세한	2,000,000	2021.12.09	박민정	35,000	2021.12.29
이종화	50,000	2021.11.05	이의영	30,000	2021.12.10	전수연	35,000	2021.12.30
유석호	50,000	2021.11.05	김앤장 법률사무소	1,500,000	2021.12.13	이규철	35,000	2021.12.30
이현선	50,000	2021.11.05	에스통상(주)	20,000,000	2021.12.13	이강민	35,000	2021.12.30
오태욱	100,000	2021.11.05	에스통상(주)	20,000,000	2021.12.13	류승훈	35,000	2021.12.31
신혜주	50,000	2021.11.05	법무법인 태평양	100,000,000	2021.12.15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1,000,000	2021.12.31
박진호	10,000	2021.11.05	재단법인 나온	25,000,000	2021.12.15	이원석	70,000	2022.01.03
김지수	10,000	2021.11.05	페이스북	118,307,000	2021.12.15	박지혜	1,000,000	2022.01.04
김다연	30,000	2021.11.05	조현지	50,000	2021.12.17	이형규	35,000	2022.01.04
박은정	10,000	2021.11.05	이정희	70,000	2021.12.17	이현우	105,000	2022.01.05
박상록	10,000	2021.11.05	김진훈	35,000	2021.12.17	박재윤	35,000	2022.01.05
이윤진	10,000	2021.11.05	민보현	35,000	2021.12.17	김정민	10,000	2022.01.06
구현정	10,000	2021.11.05	정다연	105,000	2021.12.17	강윤구	10,000	2022.01.06
홍성혜	10,000	2021.11.05	김동은	35,000	2021.12.17	이종준	10,000	2022.01.06
김휘재	10,000	2021.11.05	나누리	70,000	2021.12.17	윤아현	10,000	2022.01.06
신동일	70,000	2021.11.05	오혜인	35,000	2021.12.18	석소현	10,000	2022.01.06
지승민	30,000	2021.11.05	김민형 9기 졸업생	35,000	2021.12.18	이창규	10,000	2022.01.06
박정현	10,000	2021.11.05	주경숙520708	100,000	2021.12.18	이종화	50,000	2022.01.06
김효준	10,000	2021.11.05	김동길	35,000	2021.12.18	유석호	50,000	2022.01.06
노주환	30,000	2021.11.08	백대열(9기)	35,000	2021.12.18	이현선	50,000	2022.01.06
법무법인 케이씨엘	1,000,000	2021.11.09	전예라	35,000	2021.12.18	오태욱	100,000	2022.01.06
엘지유플러스	15,000,000	2021.11.09	김태환	35,000	2021.12.18	신혜주	50,000	2022.01.06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1,000,000	2021.11.10	김연진김지수8기	350,000	2021.12.18	박진호	10,000	2022.01.06
법무법인 피터앤김	1,500,000	2021.11.10	정송현	35,000	2021.12.18	김지수	10,000	2022.01.06
법무법인(유)에이팩스	1,000,000	2021.11.10	이윤아9기	35,000	2021.12.18	김다연	30,000	2022.01.06
이의영	30,000	2021.11.10	김소연	70,000	2021.12.18	박은정	10,000	2022.01.06
법무법인(유) 광장	1,500,000	2021.11.12	김보연	35,000	2021.12.18	박상록	10,000	2022.01.06
법무법인(유) 충청	1,000,000	2021.11.15	최제환(8기)	35,000	2021.12.19	이윤진	10,000	2022.01.06
법무법인(유) 태평양	1,500,000	2021.11.15	법무법인 지평	50,000,000	2021.12.20	정철호	10,000	2022.01.06
엔에이치투자증권(주)	20,000,000	2021.11.18	박상욱	35,000	2021.12.20	법무법인(유)광장	100,000,000	2022.01.10
대한상사중재원	7,000,000	2021.11.22	변성운	10,000,000	2021.12.20	이의영	30,000	2022.01.10
강민구	50,000	2021.11.22	변성운	10,000,000	2021.12.20	이인재	35,000	2022.01.12
이경준	100,000	2021.11.22	강민구	50,000	2021.12.20	김효준	10,000	2022.01.12
법무법인(유) 화우	1,500,000	2021.11.23	이경준	100,000	2021.12.20	박정현	10,000	2022.01.12
법무법인 지평지성	1,000,000	2021.11.24	주식회사 파인텍	10,000,000	2021.12.21	지승민	30,000	2022.01.12
법무법인(유) 율촌	1,500,000	2021.11.25	원경주	70,000	2021.12.21	구현정	10,000	2022.01.12
방윤섭	100,000	2021.11.25	홍건기 법률연구재단	12,000,000	2021.12.21	홍성혜	10,000	2022.01.12
유흥수	100,000	2021.11.25	서의영	35,000	2021.12.22	신동일	70,000	2022.01.12
육지희	10,000	2021.11.25	박민영	70,000	2021.12.23	이재홍	1,000,000	2022.01.13
익명	20,000	2021.11.25	석희재	35,000	2021.12.23	법무법인(유)율촌	200,000,000	2022.01.14
전일호	10,000	2021.11.25	박상록	35,000	2021.12.23	재단법인 나온	200,000,000	2022.01.20
정병기	10,000	2021.11.25	오다영	35,000	2021.12.24	강민구	50,000	2022.01.20
최지석	10,000	2021.11.25	한예슬	50,000	2021.12.24	이경준	100,000	2022.01.20
홍석재	50,000	2021.11.25	이종현	35,000	2021.12.24	법무법인(유)지평	50,000,000	2022.01.24
학봉강학회	50,000,000	2021.11.26	양동윤	35,000	2021.12.24	방윤섭	100,000	2022.01.25
Eyagi(이야기) CAFE	22,500,000	2021.11.30	김지연	35,000	2021.12.24	유흥수	100,000	2022.01.25
김정민	10,000	2021.12.05	한병기	35,000	2021.12.24	육지희	10,000	2022.01.25
강윤구	10,000	2021.12.05	이현경	35,000	2021.12.24	익명	20,000	2022.01.25
이종준	10,000	2021.12.05	최효재	35,000	2021.12.24	전일호	10,000	2022.01.25
윤아현	10,000	2021.12.05	송화	35,000	2021.12.24	정병기	10,000	2022.01.25
석소현	10,000	2021.12.05	홍서현	35,000	2021.12.24	최지석	10,000	2022.01.25
이창규	10,000	2021.12.05	김택수	140,000	2021.12.24	홍석재	50,000	2022.01.25
이종화	50,000	2021.12.05	홍혜인	70,000	2021.12.24	사단법인 온울	8,500,000	2022.01.28
유석호	50,000	2021.12.05	유혜운	35,000	2021.12.24	노주환	30,000	2022.01.31
이현선	50,000	2021.12.05	박준성	70,000	2021.12.24	전두영	5,000	2022.02.05

김정민	10,000	2022.02.08	김효준	10,000	2022.02.10	한화손해보험(주)	10,000,000	2022.02.23
강윤구	10,000	2022.02.08	박정현	10,000	2022.02.10	한화솔루션 주식회사	10,000,000	2022.02.23
이중준	10,000	2022.02.08	지승민	30,000	2022.02.10	한화솔루션(주)	10,000,000	2022.02.23
윤아현	10,000	2022.02.08	구현정	10,000	2022.02.10	한화시스템(주)	10,000,000	2022.02.23
석소현	10,000	2022.02.08	홍성혜	10,000	2022.02.10	한화테크윈 주식회사	10,000,000	2022.02.23
이창규	10,000	2022.02.08	신동일	70,000	2022.02.10	한화토탈 주식회사	10,000,000	2022.02.23
이중화	50,000	2022.02.08	이의영	30,000	2022.02.10	한화디펜스(주)	10,000,000	2022.02.24
유석호	50,000	2022.02.08	김앤장 법률사무소	8,000,000	2022.02.11	임효준	1,000,000	2022.02.25
이현선	50,000	2022.02.08	법무법인(유) 광장	8,000,000	2022.02.14	김하영	50,000	2022.02.25
오태욱	100,000	2022.02.08	법무법인(유) 태평양	8,000,000	2022.02.15	방윤섭	100,000	2022.02.25
신혜주	50,000	2022.02.08	(사)국제중재심의회	3,000,000	2022.02.16	유홍수	100,000	2022.02.25
박진호	10,000	2022.02.08	봉옥법률사무소	500,000	2022.02.18	육지희	10,000	2022.02.25
김지수	10,000	2022.02.08	한화투자증권	10,000,000	2022.02.18	익명	20,000	2022.02.25
김다연	30,000	2022.02.08	법무법인 율촌	2,200,000	2022.02.21	전일호	10,000	2022.02.25
박은정	10,000	2022.02.08	강민구	50,000	2022.02.21	정병기	10,000	2022.02.25
박상록	10,000	2022.02.08	이경준	100,000	2022.02.21	최지석	10,000	2022.02.25
이윤진	10,000	2022.02.08	법무법인(유) 세종	1,500,000	2022.02.22	홍석재	50,000	2022.02.25
정철호	10,000	2022.02.08	(주)한화건설	10,000,000	2022.02.22			
이인재	35,000	2022.02.10	한화생명보험(주)	10,000,000	2022.02.23			

* 기부정보는 기부자의 익명약정 요청 및 신청서가 미접수된 경우 해당 정보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예 우 안 내

기부금액에 따라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서 제공하는 예우 프로그램과 서울법대의 특별 예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50억 원	10억 원	5억 원	1억 원	5천만 원	1천만 원	1백만 원
기념품 및 간행물	총장 명의 감사패, 원장 명의 감사패	•	•	•	•	•	•	감사장
	기념품(본부, 법대), 간행물(본부, 법대), 달력, 생일카드	•	•	•	•	•	•	•
관악 명예 동문 특별초청	입학식, 개교기념식	•	•	-	-	-	-	-
	총장실 초청 약정식 및 감사패	•	•	•	•	-	-	-
	캠퍼스투어, 장학금 수여식	•	•	•	•	-	-	-
	기부자 초청 음악회, 전시회	•	•	•	•	•	•	-
	법대 행사 초청	•	•	•	-	-	-	-
	홍상	•	-	-	-	-	-	-
	부조	•	•	-	-	-	-	-
	기부자 리포트(본부, 법대)	•	•	•	•	•	-	-
	법대 명예의 전당(17동 1층) 명패 보존, 행정관 명예의 전당, 연구공원 명예의 전당(1억원 이상)	•	•	•	•	•	•	-
	교내 주요 행사 초청	•	•	•	•	•	-	-
	총장 공관 만찬 초청	•	-	-	-	-	-	-
	관악캠퍼스 무료주차	•	•	•	•	-	-	-
학교시설 이용편의	미술관, 박물관, 규장각 관람	•	•	•	•	•	•	-
	호암교수회관 및 서울대 기념품 할인	•	•	•	•	•	•	-
	중앙도서관 본관 이용	•	•	•	•	•	•	•
	평생교육원 수강료 할인	•	•	•	•	•	•	기한
	법학도서관 이용	•	•	•	•	•	•	•
	법대 최고지도자과정 입학추천권	•	•	•	•	•	-	-
	건강검진 주선 및 진료예약	평생	평생	기한	기한	-	-	-
서울대병원 이용편의	의전서비스	평생	10년	기한	기한	-	-	-
	근조기	•	•	•	•	•	•	-

SNU Law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02-880-7530
Fax. 02-889-7196

<http://law.snu.ac.kr>